

GIST 발전후원회 부회장에 거명이앤씨(주) 반재경 대표이사, 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상균 임명

- 나눔에 뜻이 있는 후원자 발굴 및 지역 내 기부문화 확산 기대
- "대학과 지역사회·기업 상생 발전 위해 노력... GIST의 나눔 모델 정립할 것"



▲ (왼쪽부터) 정용화 GIST 대외부총장, 반재경 거명이앤씨(주) 대표이사, 김상균 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임기철 GIST 총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반재경 거명이앤씨(주) 대표이사와 김상균 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8대 사무총장을 GIST 발전후원회 부회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GIST 발전후원회는 박주선 회장을 필두로 반재경·김상균 부회장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반재경 부회장은 전남 광양시에 소재한 플랜트 전문건설 업체 거명이앤씨(주) 대표이사로서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남지역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상균 부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 사무처장과 제8대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이래 최초 내부 승진 사무총장으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 2016년에 출범한 GIST 발전후원회는 제1대 김항식 후원회장에 이어 현재 박주선 前 국회부의장(現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제2대 후원회장을 맡아 발전기금 모금 및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재경 부회장은 "GIST와 같은 훌륭한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면 **우리 지역의 미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GIST와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상균 부회장은 "기부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잘 형성하여 **GIST의 나눔 모델이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모델이**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부와 나눔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철 총장은 "30년간 지역의 사랑을 받아 성장한 GIST는 발전후원회와 함께 **나눔에 뜻이 있는 후원자를 발굴하고 지역 내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히며, "GIST가 명실공히 세계적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민과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